

정보혁명과 종이책의 행복한 만남

세계적 석학이 내다본 21세기 책의 역할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성공은 종이책이 소멸하리라는 맥루한 이래의 예언을 무효화시켰다. 오히려 아마존처럼 정보혁명과 종이책이 서로 조화하는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예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와 미래학자가 인쇄매체와 정보혁명의 관계를 논의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해프닝으로 끝났듯이 인쇄매체가 사라지리라는 마셜 맥루한의 예언은 2천년대가 시작된 지금까지는 일단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책과 종이책이 양립하는 현재의 상황은 종이책의 소멸로 가는 단순한 과도기일까, 아니면 각자의 장점을 지켜가며 자리잡는 단계일까? 이에 대해 《뉴욕리뷰오브북》에 〈책의 새 시대〉(The New Age of the Book)를 기고한 역사학자 로버트 단턴은 전자책과 종이책이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문학의 위기와 전자책의 효용

단턴은 종이책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예언과는 달리, 종이책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예컨대 빌 게이츠 역시 많은 분량의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프린트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어떤 기계가 나오더라도 종이책의 편리함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책의 죽음이 곧장 논의되는 까닭은 맥루한의 이론 때문이 아니라, 책이 속도의 측면에서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단턴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협력관계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데도 종이책으로 출간된 《스타보고서》가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것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역할분담을 잘 말해준다는 것이다. 학자로서 단턴은 여기에 종이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자책의 역할을 새로운 시대의 책으로 제시한다.

단턴은 전자책으로 만들 만한 대상을 종이책으로 출간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을 꼽는다. 그에 따르면 출판과 관련한 인문학의 위기는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야기된다. 첫번째, 학회지 구독료가 급상승하면서 각 대학도서관의 논문 구

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두번째, 학술상까지 받은 전문서적이 고작 5백부도 팔리지 않는 등 대학출판부 간행물의 판매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대학출판부는 자구책으로 입문서나 실용서, 혹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라도 성이론·여성이론·동성애문제·포스트식민주의 등 유행하는 주제에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진지한 연구자들의 논문 출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구성과가 사장되고 있다.

단턴은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적들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고 각 대학도서관도 큰 부담없이 전자책을 비치할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다. 그리고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전자책을 중심으로 관련자료와 참고문헌, 독자서평 등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조직돼 상호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책을 제시한다. 이런 전자책을 통해 위기에 빠진 인문학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가 “구텐베르크의 세계는 더 넓어지는 셈이다. 구텐베르크의 위대한 발명품인 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해주는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으니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혁명의 핵심은 전지구적 유통망

《아틀란틱 먼쓰리》에 〈정보혁명을 넘어서〉(Beyond the Information Revolution)를 발표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정보혁명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차로 단축된 새로운 지리학을 배경으로 한다면, 21세기 정보혁명은 거리가 소멸된 사이버세계를 토대로 서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거리의 소멸을 구현할 수 있는 유통망에 있다.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무거운 종이책의 형태로 배송하는 아마존과 반즈앤노블 같은 사업을 설명하면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내 책은 아마존에서 제일 먼저 팔렸다.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지만, 첫 독자는 아르헨티나인이었다.”

드러커는 정보혁명의 본질이 디지털화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유통망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인쇄해 전유럽에 유통시키기 전까지 금속활자의 문화적 효과는 미미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혁명에서 컴퓨터는 단순한 도화선에 불과하다. 그는 거리가 소멸된 정보혁명의 결과로서 파생될 산업의 전면적 변화를 예견한다. 이 변화로 구체화될 정보혁명이 단순히 종이책의 소멸과 전자책의 일반화로만 귀결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 김연수 기자

정보혁명 시대의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점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전지구적인 유통망을 이용할 공산이 크다.

